

# 오리 산업화 실태와 발전방안

박무균 축기연종축개발부 중소가축과장

## 5. 오리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1) 오리고기의 소비형태의 개선

오리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오리고기의 수요를 창출하여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보감에 오리고기는 사람의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민의 관심과 선호도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오리고기 요리가 개발되어 전국 곳곳에 전문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육류에 대한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리고기 소비형태는 가정에서의 소비보다 외식업에서 축하연 직장회식 등을 통하여 대부분 소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비확대에 한계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모든 식구가 즐길 수 있는 요리 개발과 홍보는 물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가공식품 즉 닭고기와 같이 부분육이 아파트나 주택가

의 식품상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리고기 맛을 알고 가정에서 요리를 하고 싶어도 어느 곳에서 사야 하는지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 해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의 한 사례로서 한 오리 사육자가 오리고기를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판매행사를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오리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해선 그 동안의 음식점만을 상대로 한 판매보다 오리 소비자와 사육자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른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청둥오리, 유황오리 등의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오리고기의 소비층을 확대하고 있다.

### 2)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저하

오리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닭고기 가격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야만

한다.

다른외국의 사례에서도 오리산업의 성공여부는 가격면에서 닭고기와의 가격경쟁에 달려 있다 한다. 한국오리협회에 의하면 오리와 닭의 소비량 비율은 1995년에 약 1:13 이었으나 1998년 말에는 1:7로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앞으로 더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리가격을 낮추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오리와 닭의 가격을 비교하면 다음 <표6>과 같다. 여기서 1998년 육용오리의 산지가격은 수당 5,608원으로 닭의 2,662원 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Kg 단가로 비교하여도 오리는 1,528원이나 닭은 1,099원으로 오리가 비싸게 조사되었다.

초생추 평균가격은 오리와 닭이 각각 1,033원, 347원으로 오리가 약 3배나 높았고 출하체중까지의 생산비도 오리와 닭이 각각 4,585원, 2,398원이어서 오리가 약 2배 높았다. 생산비중 초생추 가격의 비율은 오리가 23%, 닭이 14.5% 였으나 사료비의 비중은 오리가 54.2%, 닭이 56.9%인 것으로 분석되어 오리의 생산비를 낮추기 위하여는 초생추가격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98년 수당 수익은 오리가 닭보다 약 4배 많았다.

오리가격을 더 낮추어야만 하는 더 큰 이유는 앞으로 중국산 오리의 수입이 재개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국내의 오리산업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6 > 오리와 닭의 가격비교

(단위: 원/수당)

구 분	오 리	닭	비 고
초생추 가 격	1,033	347	오리생체 3Kg
육 용 생 산 비	4,585	2,398	닭 생체 2Kg
산 지 가 격	5,608	2,662	가 격: 98
생 산 비 중 초 생 추 비	23%	14.5%	평 균 가 격

\* 자료: 축협조사월보(99.3), 오리협회지(99.4), 축산물 생산비조사보고서(99)

다음 <표7>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오리생산량과 수입량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오리고기의 수요증가에 따라 매년 국내의 오리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입량도 급격히 증가세를 나타내어 자급율은 96년에 76.1%까지 하락하다가 97년의 중국산오리의 수입 증지로 다시 증가하여 98년에는 90% 이상까지 높아져서 국내 오리업계의 호황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99년 하반기에는 다시 중국산 오리의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것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수입된 오리가격을 정육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97년도에 중국산이 Kg당 2.2-2.3불로 가장 싸었고 98년에는 태국산과 미국산이 3

.05불 수준으로 안상되었다.

**<표7> 연도별 오리고기 생산량과 수입량 비교**

년 도	국 내 생 산	수입량	합 계 (톤)	자 급 율(%)
94	12,219	3,321	15,540	78.6
95	17,818	4,915	22,733	78.4
96	26,770	8,404	35,174	76.1
97	29,559	7,216	36,775	80.4
98	20,025	1,959	21,984	91.1

**3) 유통구조 개선과 위생적 가공산업 육성**

농축산물의 산업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유통 가공산업을 발전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오리의 유통과정을 보면 대부분 생산자와 음식점의 직거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생산자가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물 처리를 하지 못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며 거래가 수당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리를 크고 잘 길러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규정된 도축 시설이 없어서 대부분 생산자가 간이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자가도축을 해야 하므로 성력화가 안되고 비위생적이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오리산업의 발전

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생산성으로 높이고 유통과 가공은 서비스업에서 일괄처리하여 소비자와 연결하는 계열화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앞으로 오리고기의 수출을 위해서는 규격화 생산기술 개발, 위생적인 도축과 가공 등의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4) 오리고기의 수출산업화**

1998년 국내 오리사업은 호황으로 이루어졌으나 연말부터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9년초부터는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을 우려하면서도 오리 사육수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최근 오리 배합사료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오리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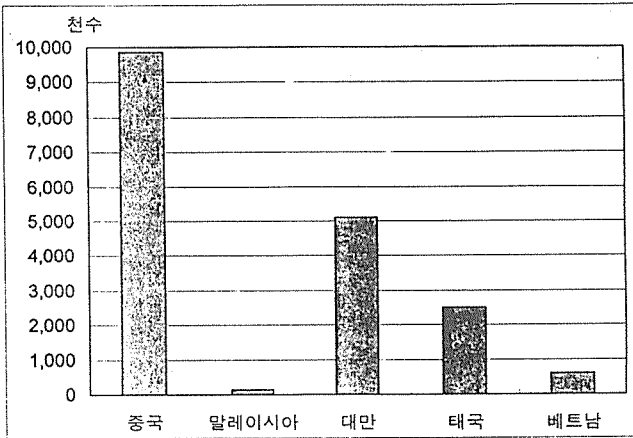
이와같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어져서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하여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오리고기를 수출하여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 가까운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오리고기를 수입하는 소비 시장이다. 따라서 국내 오리산업계는 일본시장을 목표로 오리 수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고품질의 고기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그림 4>는

일본의 오리고기 수입현황이다. 아시아 지역의 오리생산국들은 일본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하여 맹렬한 경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거의 천분수를 일본에 수출하여 총 수입물량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나 5년전만 아쳐도 대만이 일본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오리생산비 상승으로 일본시장을 점차 빼앗기고 있다. 이들 국가외에도 태국과 베트남이 일본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실용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서 실용계를 계속적으로 증식에 이용할 때에는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종오리의 개량 및 생산은 영국의 체리베리사나 프랑스의 그리드사와 같은 몇개의 큰 육종회사에서 전세계의 종오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이들 회사로부터 종오리를 수입하여 육용오리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새끼오리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종오리중 약 40% 정도 만이 체계적으로 육종된 세대의 종오리이고 나머지 60%이상은 실용오리를 다시 육용오리 생산에 이용하여 F2이상의 잡종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내 오리의 생산성은 아주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농가의 오리능력을 검정하거나 조사하는 곳조차 없을 뿐만아니라 농민 자신이 이러한 상식을 모르고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국의 전문육종회사와 같이 종오리 개량까지는 할 수 없지만 원종오리를 도입하여 실용오리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체계 확립으로 농가의 오리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4> 일본의 오리고기 수입량

5) 종오리 개량 및 보급체계 확립

오리의 생산체계도 닭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육종기술이 발달하여 순종군과

6) 오리의 연구 및 전문가 양성

오리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오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전문가도 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구소나 학계에서 오리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가 거의 없으며 오리에 관한 사양기준이나 전문서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외국으로부터 종오리를 수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가끔 외국 종오리회사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사육자를 교육하므로써 오리 사육에 관한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며 대부분의 오리 농가들은 어떠한 사양지침서도 없이 적당히 기르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유향오리생산, 남은 음식물을 이용한 오리사육 등이 성행되고 있으나 이것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장되고 있다. 오리 생산국으로 알려진 대만에서는 오리연구소에서 전문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를 농민지도에 활용하므로써 오리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오리산업을 양계산업의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고 수출산업화 되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검정소나 전문연구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 6. 맺은말

오리는 그동안 사육수수가 적고 시장성이 낮아서 우리나라의 축산법에 기타가축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의 오리시장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의 오리

사육수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업화 산업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양계산업에 비하면 이제 겨우 초기산업을 걷고 있으며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도 험준한 고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금년 3-4월부터 과잉생산의 징후가 나타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가 하면 하반기 부터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 한다.

지난해 오리산의 호황은 수입량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안정적인 기반위의 발전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나라의 오리산업을 이끌어 갈 전업농가들은 현대사회가 국제경쟁력 사회라는 것을 조금도 잊지말고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안되며 미래의 오리산업화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준 한국오리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결>